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15일(금) 총 11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콘텐츠과	담당자	• 콘텐츠정책담당 송은주 ☎440-3991 • 담당자 한순덕 ☎440-399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영화주간 2021’ 10월 23일 개막

- 개막 앞서 전체 상영작 등 핵심프로그램 공개 -
-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애관극장에서 인천 소재 상영작 8편 관객들 만나 -
- 사전 신청 10월 11일(월)부터 10월 20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

인천시가 올해 처음 ‘인천 영화 주간 2021’을 개최해 102년 한국영화 역사 태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영화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인천 시민들과 함께 영상 문화를 통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이원석 감독)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애관극장 및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인천 영화 주간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일인 23일과 이튿날인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애관극장에서 인천을 소재로 하는 상영작 8편이 관객들과 만난다.

▲인천 최초의 프로야구단 삼미 슈퍼스타즈의 패전처리 전문투수 감사용의 꿈과 도전을 그린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감독 김종현)’을 시작으로 ▲고양이를 부탁해(감독 정재은) ▲그대를 사랑합니다(감독 추창민) ▲천하장사 마돈나(감독 이해영, 이해준) ▲파이란(감독 송해성)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 ▲무뢰한(감독 오승욱) ▲담보(감독 강대규) 등이 상영된다.

이어 26일과 27일 영화공간주안에서는 ‘인천 영화 열전’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귀별레(감독 박나나), ‘남남(감독 고경수), ‘다정을 위한 시간(감독 김지현), ‘실버벨(감독 유수민), ‘짝사랑(감독 주영), ‘코리아타운(감독 안소희)’ 등 씨네인천의 제작지원작 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또한, 28일에는 별별씨네마 세션을 통해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 및 인천 배경 촬영 작품인 ‘아역배우 박웅비(감독 김슬기), ‘웅비와 인간 아님 친구들(감독 김다민), ‘남매의 여름밤(감독 윤단비), ‘휴가(감독 이란희)’ 등이 영화공간주안에서 상영된다. 씨네인천과 별별씨네마에 선정된 작품들은 영화 종료 후 영화해설 및 GV(관객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별별씨네마는 ‘인천영화주간 2021’ 기간 외에도 10월과 11월에 걸쳐 인천시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슈퍼스타 감사용’, ‘천하장사 마돈나’, ‘파이란’,

‘차이나타운’, ‘무뢰한’ 등 중요 상영작 5편에 대한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더불어 ‘차이나타운’ 상영 종료 후 진행되는 GV(관객과의 대화)에는 한준희 감독뿐만 아니라 특별 게스트로 배우 고경표가 참석해 관객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작품 상영과 함께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김경태 프로그래머와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진행하는 토크 프로그램 ‘영화가 상상하는 환대의 방식들’이 23일에, 변영주 영화감독과 김도훈 기자가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 ‘인간을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영화’가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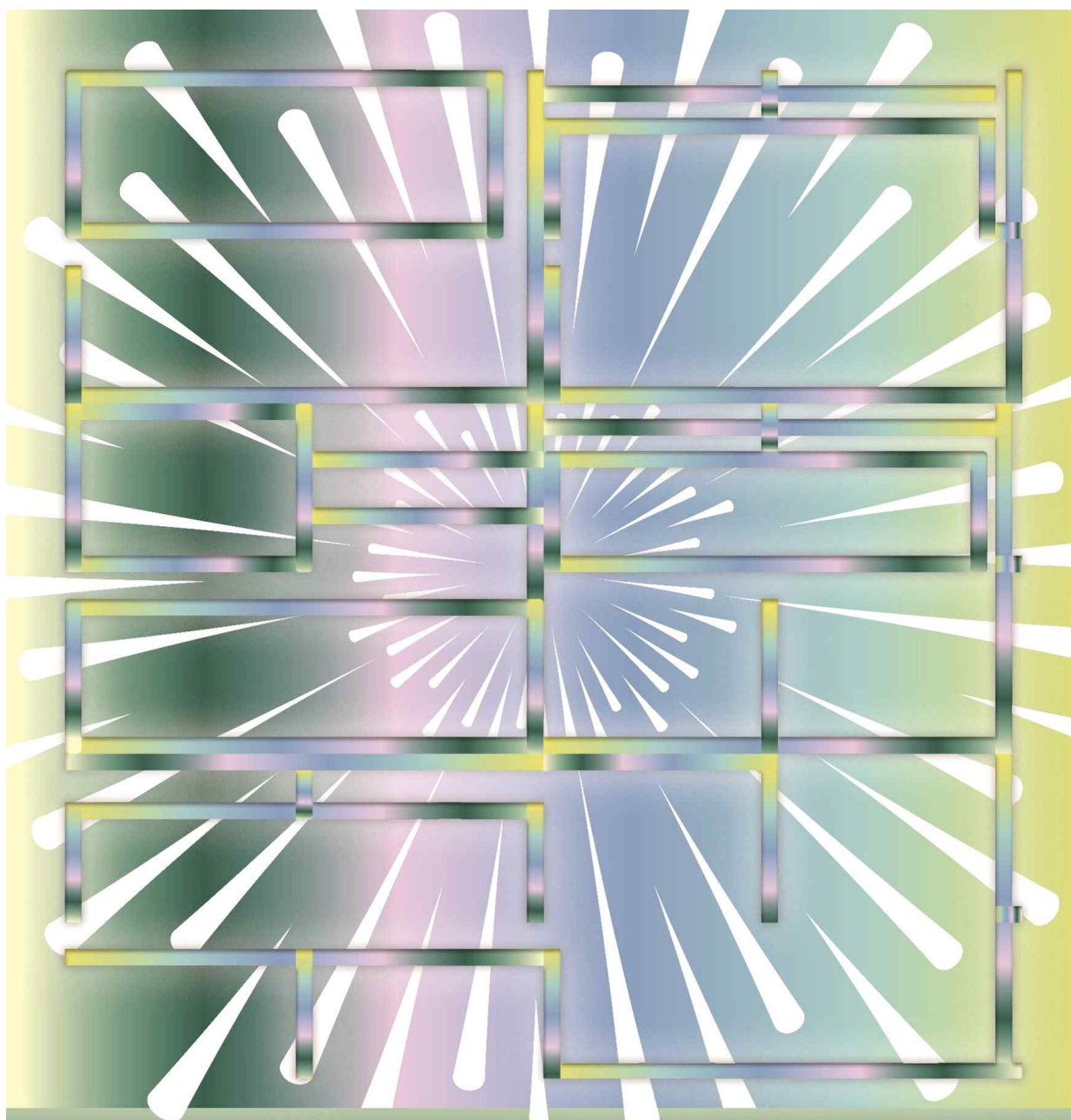
‘인천 영화 주간 2021’ 김경태 프로그래머는 “인천 영화 주간 2021 상영작들은 ‘영화도시 인천’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해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인천 시민들을 비롯해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개최된다. ▲모든 영화 관람은 사전 예매로 진행 ▲모든 입구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에 따라 상영관 관객 수 50% 이하로 제한하며 관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 영화 주간 2021’의 사전 신청은 10월 11일(월)부터 10월 20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인천 영화 주간 상영작 정보 및 사전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ifwk.c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인천 영화 주간 2021’ 개최가 영화의 시작과 함께 했던 인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영화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인천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별첨 > 포스터, 행사 개요 등



인천 영화 주간 2021

INCHEON FILM WEEK 2021

애관극장,
인천광역시 일대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
INCHEON, CITY OF OPEN
COMMUNITY

2021.10.23. (Sat)
- 2021.10.29. (Fri)

주최



주관



별첨1. ‘인천 영화 주간 2021’ 행사 개요

인천 영화 주간 2021

일 정 : 2021. 10. 23.(토) ~ 10. 29.(금) / 총 일주일간

장 소 : 애관극장, 부연, 영화공간주안

홈페이지 : www.ifwk.co.kr

페이스북 : [facebook.com/IncheonFilmCommission](https://www.facebook.com/IncheonFilmCommission)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incheon_film

유 튜 브 : <https://bit.ly/3FcpSBz>

주 최 : 인천광역시

주 관 :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별첨2. ‘인천 영화 주간 2021’ 전체 프로그램 개요

■ 인천 영화 주간 2021 프로그램 개요

일자	장소	프로그램
10.23.(토)—10.24.(일)	애관극장	인천 영화 주간 2021
10.19.(화)—10.29.(금)	부연	특별 전시 : 영화와 극장이 있는 인천 풍경
10.26.(화)—10.28.(목)	영화공간주안	씨네인천X별별씨네마 인천 영화 열전
10.29.(금)	영화공간주안	2021 인천 영상 포럼

별첨3. ‘인천 영화 주간 2021’ 상영작 목록

■ 인천 영화 주간 2021 (총 8편)

올해 인천 영화 주간에서는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8편의 장편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은 빈곤한 여성, 이주노동자, 트랜스젠더,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서 봤을 때, 이들은 실패한 삶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는 보다 깊은 관계 맺기, 즉 연대의 출발점이 된다. 관계의 윤리가 기준이 될 때, 즉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풍족하지 못한 삶을 그저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위태로운 여성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파이란>에서는 삼류 건달과 이주노동자와의 위장 결혼으로 표명된 뜻밖의 연대에서 그 기원이 되는 감각으로 친절함을 발견한다.

<차이나타운> 역시 그 뜻밖의 친절함은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일별하게 한다.

<담보>에서는 사채업자가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딸을 기꺼이 입양하며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

<슈퍼스타 감사용>은 첫 승의 실패 후 야구팀 동료들이 함께 바닷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맺으면서 승리가 아니라 우애의 가치에 주목하도록 한다.

<천하장사 마돈나>에서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소년은 결핍된 가족과 편견 어린 학교 대신에 차이를 포용하는 씨름부라는 대안적 공동체에서 지지와 위로를 받는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는 달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서로를 정성껏 돌보며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

<무뢰한>은 적대적인 관계인 농인 이들이 서로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으키는 감정의 파동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은 우월한 공동체로 편입되기 위해 출세를 지향하며 ‘위로’를 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규율에 저항하며 무작정 ‘밖으로’를 외치지도 않는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와 직접 이어지는 맨몸의 감각,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옆으로’를 외치며 서로를 돌보는 ‘열린 공동체’의 체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오래된 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개방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경은 열린 공동체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있다. 그 도시 공간은 타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며 아웅다웅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친밀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며 우정과 연대를 돈보이게 한다.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제작년도	감독
1	고양이를 부탁해	한국	2001	정재은
2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국	2010	추창민
3	담보	한국	2020	강대규
4	무뢰한	한국	2014	오승욱
5	슈퍼스타 감사용	한국	2004	김종현
6	차이나타운	한국	2014	한준희
7	천하장사 마돈나	한국	2006	이해준, 이해영
8	파이란	한국	2001	송해성

별첨4. ‘인천 영화 열전’ 상영작 목록

■ 인천 영화 열전 (총 10편)

■ 지역 영상인력 및 단체지원—씨네인천(6편)

인천영상위원회의 대표 지원 사업 ‘지역 영상인력 및 단체지원-지역 영상인력 지원 씨네인천’ (이하 씨네인천)은 지역의 영상인력 및 단체의 발굴·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영상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상문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영상인력 지원’은 지역 창작자의 장편영화 기획개발 및 단편영화 제작비 지원, 이에 더해 지원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멘토링, 특강, 기술시사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활한 배급 및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인력 지원은 130여편의 장·단편 영화를 지원, 국내 우수 영화제에 꾸준히 선정/상영되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지역 영상인력 지원 ‘씨네인천’의 공모는 매년 봄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영상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영상단체 지원 ‘씨네리천’과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ifc.or.kr)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제작년도	감독
1	귀별레	한국	2020	박나나
2	남남	한국	2021	고경수
3	다정을 위한 시간	한국	2019	김지현
4	실버벨	한국	2014	유수민
5	짝사랑	한국	2021	주영
6	코리아타운	한국	2019	안소희

▪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별씨네마(4편)

인구 300만 규모의 인천은 타 지역과 비교, 지역 내 영상 미디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인천영상위원회는 2013년부터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별씨네마’ 사업을 운영하며 인천의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다양성영화 상영관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정기 상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 상영 종료 후에는 전문 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영화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관객 커뮤니티 구성, 영화제 방문, 감독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동적인 영화 관람을 넘어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첫 환자 발생 이후, 공공상영관에서의 상영이 어려워져 온라인 상영(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 라이브스트리밍 및 인천N방송 상영)을 병행하며 확장된 형태의 공공상영관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성영화들과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들로 인천의 곳곳을 찾게 될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별씨네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No	작품제목	제작국가	제작년도	감독
1	남매의 여름밤	한국	2019	윤단비
2	휴가	한국	2020	이란희
3	아역배우 박웅비	한국	2018	김슬기
4	웅비와 인간이 아닌 친구들	한국	2020	김다민

별첨5. ‘2021 인천 영상 포럼’ 프로그램 안내

○ 행사개요

일시 : 10.29.(금) 13:00—18:00

장소 : 영화공간주안 3관

주최 :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영상위원회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협력 :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영화공간주안, 인천독립영화협회, 인천미림극장,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프로그램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10.29. (금)	13:00 ~ 15:00	<p>섹션Ⅰ <지역극장의 활성화 방안 - 커뮤니티 시네마로의 확장 가능성></p> <p>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 공동체와 영화 문화의 관계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전 세계에서 사용 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급 마케팅의 사례인 공동체 상영을 시작으로, 극장이 아닌 공간들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커뮤니티 시네마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지역 극장들은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각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천 지역의 극장과 커뮤니티 시네마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극장들의 커뮤니티 시네마로서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p>
	16:00 ~ 18:00	<p>섹션Ⅱ <인천 문화생태계의 새로운 경향 - 청년의 출현></p> <p>인천 문화 생태계 속 청년들은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과 방향성, 인천지역의 문화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로 들어온 청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어 인천의 문화생태계 안에서 영상인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청년 인력들의 출현은 인천 지역의 문화생태계에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p>